

##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류 승 아†

경남대학교

공동체의식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서, 오늘날 발생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자신이 속한 대학이므로, 대학생들의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 및 사회의 안녕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의 예측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또한 대학 공동체의식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도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451명으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개인의 안녕을 측정하는 척도는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학업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이었고,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는 척도는 봉사활동 여부와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었다. 대학 공동체의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대학의 인지도와 대학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대학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대학 인지도와 서비스 만족도는 대학 공동체의식의 유의미한 설명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매개분석 결과 대학 인지도와 서비스 만족도는 대학 공동체를 매개로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공동체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동체의식, 개인의 안녕, 사회적 관심

\* 본 연구는 경남대학교 신진교수 연구비의 학술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류승아,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631-70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Tel: 055-249-6412, E-mail: ilcheu@gmail.com

최근의 한국 사회는 청소년 폭력, 자살, 중독, 그리고 소외의 문제가 실시간 화두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만연해 있다. 단순한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행태는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36 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교한 조사결과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35위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 관계 지향성(참여)과 사회적 협력(신뢰)이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이 공동체의식의 결여와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공동체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특히 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의 예측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

공동체(community)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특정 공간이나 장소, 또는 집단을 일컫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 정서, 의미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강가영, 장유미, 2013). Hillery(1955)는 공동체의 다양한 종류를 설명하면서 문화 심리적 단위를 가장 강조하였다. 즉, 공동체의 본질은 구성원들의 가치와 신념 및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적 일체감과 '우리'라고 느끼고 연대함으로써 갖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McMillan과 Chavis(1986)도 이와 같은 정의에 동의하였는데,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상호관계를 통한 욕구충족 등의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가치나 신념의 측면에서 공동체와 공동체의식을 정의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예를 들면,

Hughey & Speer, 2002; Long & Perkins, 2003; Manzo & Perkins, 2006) 가치 또는 정서와 관련하여 공동체 및 공동체의식을 정의하고 있다.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는 McMillan과 Chavis(1986)의 이론이다. 이들은 공동체의식을 소속감(membership), 상호영향(influence), 욕구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및 정서적 친밀감/유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 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하위요인인 소속감(membership)은 개인이 그 조직/그룹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감정 또는 나와 조직/그룹 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상호영향력(influence)으로, 개인이 집단의 변화나 개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과, 동시에 집단이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상호영향력을 말한다. 세 번째는 욕구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집단 및 집단 구성원들이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친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억들, 즉 같은 시공간에서의 유사한 경험들을 이야기 하고 나눌 수 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뜻한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안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맥락적 요소, 즉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Gattino, De Piccoli, Fassio, & Rollero, 2013). Hawthorne, Herrman 및 Murphy(2006)는 “사회적 지표, 예를 들면 경제적 자원 또는 GDP 등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삶의 질은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삶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p.37)고 하였고, Moles(1979) 역시 삶의 질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의 질이라고 단정하였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어떻

게 느끼고 있는지가 개인의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흥미로운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안녕을 넘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안녕이 결코 개인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의 안녕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영화, 김승현 및 김남숙(2013)은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서 만족스런 생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모아 기존의 것과 다른 형태의 것을 시도하게 된다. 즉 개인의 웰빙 실현을 위한 활동은 공동의 웰빙 추구로 이어진다(pp.313-314)”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안녕의 밀접한 관련성을 역설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행복이나 가치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과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안녕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 및 발전을 위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Kawach & Berkman, 2003; Parker, Lichtenstein, Schulz, Israel, Schork, Steinman, & James, 2001).

#### 공동체의식과 개인의 안녕의 관계

근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긍정심리학의 주요 주제는 개인의 행복, 즉 개인의 안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돈이나 물질적인 것으로만 매겨지는 가치관이 난무하는 요즘, 한편에서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행복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안녕이 개인이 속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동체의식의

관심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기영화 외, 2013; Gattino et al., 2013; Hawthome et al., 2006).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이 필요로 하는 삶의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큰 조직, 즉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곳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환경에서 나 혼자만 행복하기도 힘들고, 또한 끊임없이 위협하고 위협적인 환경에서 개인의 힘만으로 자신의 안녕을 지켜낼 수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는 개인의 안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안녕은 사회구성원들의 관계의 질에 달려 있으며(Putman, 2001),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식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왜 개인의 문제 및 안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 Baumeister와 Leary (1995)가 주장하듯이 공동체의식의 기본 개념인 소속감, 상호영향력, 욕구충족, 그리고 정서적 연계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이러한 경험은 공동체의식을 통해 명백히 충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높은 공동체의식은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공동체의식의 결여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위협을 주어 스트레스나 우울, 불행 등의 상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연구들이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등의 긍정적인 지표와의 정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Davidson & Cotter, 1989; Farrell, Aubry, & Coulombe, 2004; Prezza, Amici, Roberti, & Tedeschi, 2001; Prezza & Constantini, 1998; Sanchez, Colon, & Esparza, 2005). 오스트리아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조사한 Pretty, Andrewes 및 Collett(1994)는 공동체의식이 청소년들의 행복과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상할 수 있는 좋은 변인임을 보여주었고, Prezza

와 Costantini(1998)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공동체의식은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지지와 관련있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최근 연구(강가영, 장유미, 2013)에서도 삶의 만족과 건강인식 정도는 공동체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Roussi, Rapti 및 Kiosseoglou(2006)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은 부정 감정, 반사회성 및 공격적 성향 등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외로움, 근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는 낮았고(Pretty et al., 1994), 만성적 스트레스가 줄었으며(Cicognani, Peitranoni, Palestini, & Prati, 2009)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덜 나타났다(Roussi et al., 2006). 더 놀라운 것은 공동체의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Greenfield와 Marks(2010)는 종단연구를 통해 어린 시절 아동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느끼는 정신적 외상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살펴본데, 공동체의식이 낮은 집단의 사람들은 정신적 외상을 높은 수준으로 느끼는 반면, 높은 집단의 사람들은 정신적 외상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공동체의식과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학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GPA)가 높아질 뿐 아니라, 학교를 옮긴 경우에는 옮겨간 학교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Townley, Katz, Wandersman, Skiles, Schillaci, Timmerman, & Mousseau, 2013).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하였다(문재우, 박재산, 2013; 서정아, 조홍식, 2012).

####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심과의 관계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참여 및 문제인식 등의 사회적 관심과의 관련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체의식이란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소속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가치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려는 실천적 의식으로 정의한다. 즉, 공동체의식은 이해관계에만 입각한 비인간적 사회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의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의식을 말한다(정수복, 1995).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관심의 관계는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공동체의식은 각종 투표참여, 공공문제 해결 노력, 지역사회 개선활동 등의 참여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박가나, 2009; Davidson & Cotter, 1989; Liu & Besser, 2003).

여러 사회적 관심들 중에서, 공동체의식과 관련한 중요한 변인으로 자원 봉사활동을 꼽을 수 있다(박가나, 2009; 박재숙, 2010; 진성희, 이동주, 2010; Manarini & Fedi, 2009). 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이유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배려를 배울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자원봉사활동 중에서도 객관적인 경험 유무나 시간의 양적인 수준보다 스스로 얼마나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또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의 질적인 수준이 공동체의식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선숙, 안재진, 2012). 또한 공동체의식은 봉사활동이 다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의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박재숙(201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봉사활동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비슷한 이유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사회참여 활동도 공동체의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한은영, 김미강, 2013; Cicognani, Pirini, Keyes, Joshanloo, Rostami, & Nosratabadi, 2008; Roussi et al., 2006). 사회적 활동과 공동체의식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이 하는 사회적 활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거나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공동체 및 사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Berkman, Glass, Seeman, & Brisette, 2000)<sup>1)</sup>.

공동체의식과 관련있는 또 다른 사회적 관심 변인은 우리 사회의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들 수 있다. 공동체의식의 개념에는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결속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높은 공동체의식은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Prezza, Zampatti, Pacilli 및 Paoliello(2008)의 연구는 그러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동유럽 이민자 집단에 대한 자국민의 편견과 공동체의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두 변인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정체성은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하위요인들인 상호영향, 욕구 충족 및 정서적 유대감 등은 외집단과의 협동 및 친밀감을 이끌어 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공동체의식은 소외집단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화합과 협력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소외집단에 대한 거리감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해 본다.

### 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의 중요성과 촉진 방안

산업화/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오늘날은 기존의 지리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체의식이 많이 해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지식에 대한 탐구라는 동일한 목표로 기존의 공동체의식에서 벗어난 개인들을 묶어주어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Lounsbury와 DeNeui(1996)에 의하면 대학은 대표적인 공동체의 공간이며, 각 대학들은 각자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McMilan과 Chavis(1986)도 그들이 정의한 공동체의식의 하위 구성 요인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대학이라는 공동체 집단이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특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학교의 본래 목적인 지식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라는 거점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볼 수 있다(Carnoy, 2002, 강가영, 장유미, 2013 재인용).

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활동에 참여하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청년 발달과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Cicognani et al., 2008).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은 개인 발달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청년들의 공동체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가진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당면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긍정적이고 바른 의식은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대학들은 학생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참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

1) Berkman 외(2008)의 논문에서는 'social wellbe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음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일반적인 지역공동체(기영화 외, 2013)나 주민자치회(서재호, 2013) 등의 경우와 다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대학을 선택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에게 대학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과 관련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 차동필(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규모, 학년, 성별, 주거상황, 전공분야, 학업 성적, 교내활동 참여도, 외향성이나 행복도 등의 개인적 성격 특성들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또는 학교규모나 전공분야 등은 노력에 의하여 변화할 수 없는 특성이므로 실질적인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없다. Wiseman과 그의 동료들(2004)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 학교 내의 자원, 즉 학교가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고, 학교와의 연결망도 높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학 공동체의식과 관련있을 것 같은 또 다른 변인은 학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나 정보를 학생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학내 행사의 참여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즉, 대학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적 안녕과 사회참여를 위해 대학 당국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의 대학 당국들이 신입생 유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재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높은 공동체의식으로 인한 학교에 대한 만족감 및 기대감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학 당시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교에 대한 지원 및 잠재적

신입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차동필,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당국이 노력할 수 있는 인지도나 서비스 부분을 변인으로 선정하여 개인차원의 노력으로만 언급되던 공동체의식의 촉진 방안을 대학당국의 차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대학생들의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주관적 행복감, 우울,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 및 학업만족도)과 사회적 관심(자원봉사활동과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예측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대학에 대한 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러한 변인이 대학생들의 대학 공동체의식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의 대학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안녕인 주관적 행복감, 우울, 스트레스, 학교 및 학업만족도를 예측할 것이다.
2. 대학생들의 대학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관심인 자원봉사활동과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예측할 것이다.
3. 대학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은 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의 예측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고, 대학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대학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이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방법

### 연구 대상

설문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및 충청도 소재의 총 4개의 4년제 대학

을 선정하여 총 451명이 참여하였고, 남녀 비율은 남학생 205명(45.5%), 여학생 246명(54.5%)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2.09세( $SD=4.25$ )이었다.

#### 측정도구

#####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 SOC)

공동체의식은 김경준과 김성수(1998)가 McMillan과 Chavis(1986)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문헌을 재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로 지칭한 단어를 “우리 학교”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나는 우리학교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또는 “우리 학교에는 정말로 나를 염려해 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등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개인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 또는 대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으며, 대학으로부터 개인이 필요한 것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 내에서 정서적 유대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

주관적 행복 척도(SHS)는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4문항의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본인이 더 행복한 사람인 것으로 인식함을 뜻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 Scale: PSS)

Cohen, Kamarck 및 Mermelstein(1983)가 개발한 척도를 박준호와 서영석(2010)이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번도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 있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높은 점수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로는 “나는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또는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7로 나타났다.

##### 우울(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학생들의 우울 수준의 측정은 미국 정신보건원에서 일반인의 우울증 역학 연구를 위해 개발한 우울척도(CES-D)를 전경구, 최상진 및 양병창(2001)이 표준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극히 드물다(0점)’에서 ‘대부분 그랬다(3점)’까지의 4점 척도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크다고 해석한다. 문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또는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학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학업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나는 전반적으로 학업에 만족한다”이고,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나는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 모두 ‘전혀 만족하지 못함(1점)’에서 ‘매우 만족함(7점)’까지의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봉사활동

봉사활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학교나 인근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봉사활동(불우이웃 돕기 등)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단일문항을 사용하고,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척도로 질문하였다.

###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Scale: SDS)

사회적 거리감 척도(SDS)는 Hand와 Tryssenaar (2006)가 정신장애인과 여러 사회적 활동들을 함께 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의지를 묻는 문항으로, 류승아(2010)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신체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각 집단에 대하여 다음의 3문항을 질문하였다. [A]와 이웃이 될 의향이 있습니까?; [A]와 친구가 될 의향이 있습니까?; [A]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파트너나 책임자로서 일할 의향이 있습니까? 참여한 학생들은 3집단 각각에 대하여 총 9문항에 답하였다. 문항은 4점 척도로써 ‘전혀 없다(1)’에서 ‘강하게 있다(4)’로 구성되었고, 역채점을 도입하여 사회적 거리감의 점수가 높으면, 해당 집단의 사람과 상호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것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대학의 인지도와 서비스 만족

대학의 인지도와 서비스 만족도 문항은 김경준(1998)이 사용한 지역사회 인지도와 지역사회의 서비스 만족에 관한 질문 중 ‘지역사회’ 단어를 ‘우리 학교’로 바꾸어 실시하였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대학의 인지도 문항은 “나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와 “나는 우리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의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6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의 서비스 만족에 관한 문항은 “나는 우리 학교의 시설(예를 들면, 교육, 문화, 복지 등등)의 질이나 서비스에 만족한다”의 단일문항을 선정하였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으로 분석되었다. 기본적인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에,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주관적 행복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 및 학업 만족도)과 사회적 관심(봉사활동, 사회적 거리감)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나이를 1단계에서 먼저 통제한 후, 2단계에서 각 변인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가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과 상관관계는 표 1에 나타내었다.

공동체의식은 성별( $r=.04, n.s.$ )과 나이( $r=.03, n.s.$ )를 제외한 모든 다른 변수들에서 유의한 상관관을 보여주었다. 높은 공동체의식은 높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 $r=.40, p<.001$ ), 학업만족도( $r=.39, p<.001$ ), 학교생활만족도( $r=.54, p<.001$ ), 봉사활동( $r=.26, p<.001$ ), 대학 인지도( $r=.53, p<.001$ ) 및 대학서비스 만족도( $r=.42, p<.001$ )를 보였고, 낮은 수준의 지각된 스트레스( $r=-.33, p<.001$ ), 우울( $r=-.39, p<.001$ ) 및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r=-.31, p<.001$ )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인지도의 경우에는, 개인의 안녕 척도인 주관적 행복감( $r=.53, p<.001$ ), 학업만족도( $r=.30, p<.001$ ), 학교생활 만족도( $r=.26, p<.001$ ) 및 봉사활동 경험( $r=.30, p<.001$ )과는 정적 상관관을 보였고, 반대로 지각된

표 1.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변인	평균	표준 편차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공동체의식	3.06	.63	.40***	-.33***	-.39***	.39***	.54***	.26***	-.31***	.53***	.42***	.04	.03
2. 주관적 행복감	4.78	1.06		-.59***	-.62***	.46***	.54***	.11*	-.15**	.24***	.14**	.00	.07
3. 지각된 스트레스	2.89	.51			-.65***	-.39***	-.42***	-.06	.15**	-.22***	-.21***	.13**	.09
4. 우울	18.21	11.47				-.35***	-.52***	-.06	-.14**	-.19***	-.23***	.14**	.12#
5. 학업 만족도	4.05	1.33					.52***	.11*	-.15**	.30***	.19***	.08	.11*
6. 학교생활 만족도	4.41	1.41						.09*	-.15**	.26***	.21***	.01	.03
7. 봉사활동	2.06	1.03							-.19***	.30***	.08	.12*	.05
8. 사회적 거리감	2.40	.78								-.24***	-.13**	-.10*	-.04
9. 대학 인지도	2.60	.83									.22***	-.01	-.01
10. 대학서비스 만족도	3.08	.96										-.06	-.05
11. 성별	1.54	.50											.08
12. 나이	22.09	4.25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dummy변인으로 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

스트레스( $r = -.22, p < .001$ ), 우울( $r = -.19, p < .001$ ) 및 사회적 거리감( $r = -.24, p < .001$ )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학서비스 만족도도 대학 인지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주관적 행복감( $r = .14, p < .01$ ), 학업만족도( $r = .19, p < .001$ ), 학교생활 만족도( $r = .21, p < .001$ )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반대로 지각된 스트레스( $r = -.21, p < .001$ ), 우울( $r = -.23, p < .001$ ) 및 사회적 거리감( $r = -.13, p < .01$ )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학서비스 만족도와 봉사활동 경험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08, n.s.$ ).

#### 공동체의식과 개인의 안녕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에 예측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과 나이를 통제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공동체의식의 영향

력은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0, p < .001$ . 또한, 공동체의식을 투입한 후의 설명량의 변화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Delta R^2 = .16, p < .001$ .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은 지각된 스트레스( $\beta = -.33, p < .001$ )와 우울( $\beta = -.39, p < .001$ )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후에도 공동체의식은 지각된 스트레스( $\Delta R^2 = .11, p < .001$ )와 우울( $\Delta R^2 = .15, p < .001$ )을 설명하는 증가량도 유의미하였다, 학업 만족도( $\beta = .38, p < .001$ )와 학교생활 만족도( $\beta = .53, p < .001$ )의 경우에도 공동체의식은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변인 역시,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후 투입된 공동체의식의 설명량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각각  $\Delta R^2 = .15, p < .001$ ;  $\Delta R^2 = .28, p < .001$ ).

표 2. 공동체의식과 개인의 안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학업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	-.04	.09	-.02	.16	.05	.16***	3.66	.99	.16***	.16	.12	.06	-.03	.11	-.01
나이	.02	.01	-.06	-.01	.01	-.10*	-.33	.16	-.12**	.03	.01	.09*	.01	.01	.02
공동체의식	.68	.07	.40***	-.27	.04	-.33***	-7.14	.78	-.39***	-.81	.09	.38***	1.19	.09	.53***
F	29		.48***	23		.35**	34		.34***	28		.98***	58		.57***
R <sup>2</sup>			.17			.14			.19			.16			.28
Adj. R <sup>2</sup>			.16			.13			.18			.16			.28
ΔR <sup>2</sup>			.16***			.11***			.15***			.15***			.28***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을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step2의 결과만 제시하였음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dummy변인으로 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심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봉사활동 참여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B	S.E.	β	B	S.E.	β
성별	.23	.10	.11*	-.15	.07	-.10*
나이	.01	.01	.04	-.01	.01	-.102
공동체의식	.41	.08	.25***	-.36	.06	-.30***
F			12.56***			16.62***
R <sup>2</sup>			.08			.10
Adj. R <sup>2</sup>			.07			.10
ΔR <sup>2</sup>			.06***			.09***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을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step2의 결과만 제시하였음.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dummy변인으로 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

###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관심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관심인 봉사활동 참여와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공동체의식은 봉사활동 참여( $\beta = .25$ ,

$p < .001$ )와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beta = -.30$ ,  $p < .001$ ) 모두에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후 투입된 공동체의식의 설명량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각각  $\Delta R^2 = .06$ ,  $p < .001$ ;  $\Delta R^2 = .09$ ,  $p < .001$ ).

**대학 인지도와 대학서비스 만족도가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역할**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인지도와 대학서비스 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을 예측하고,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의 인지도와 대학서비스 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각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에 따른 회귀분석 절차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학의 인지도가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대학에 대한 인지도는 표 1의 상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의 안녕척도와 사회적 관심 척도 모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림 1에 나타나듯이 공동체의식이 매개로 들어가기 전에는 대학 인지도는 주관적 행복감( $\beta=.24, p<.001$ ), 지각된 스트레스( $\beta=-.22, p<.001$ ), 우울( $\beta=-.18, p<.001$ ), 학업 만족도( $\beta=.30, p<.001$ ), 학교생활 만족도( $\beta=.25, p<.001$ ), 봉사활동 참여( $\beta=.29, p<.001$ ) 및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beta=-.22, p<.001$ ) 모두에 직접적인 예측변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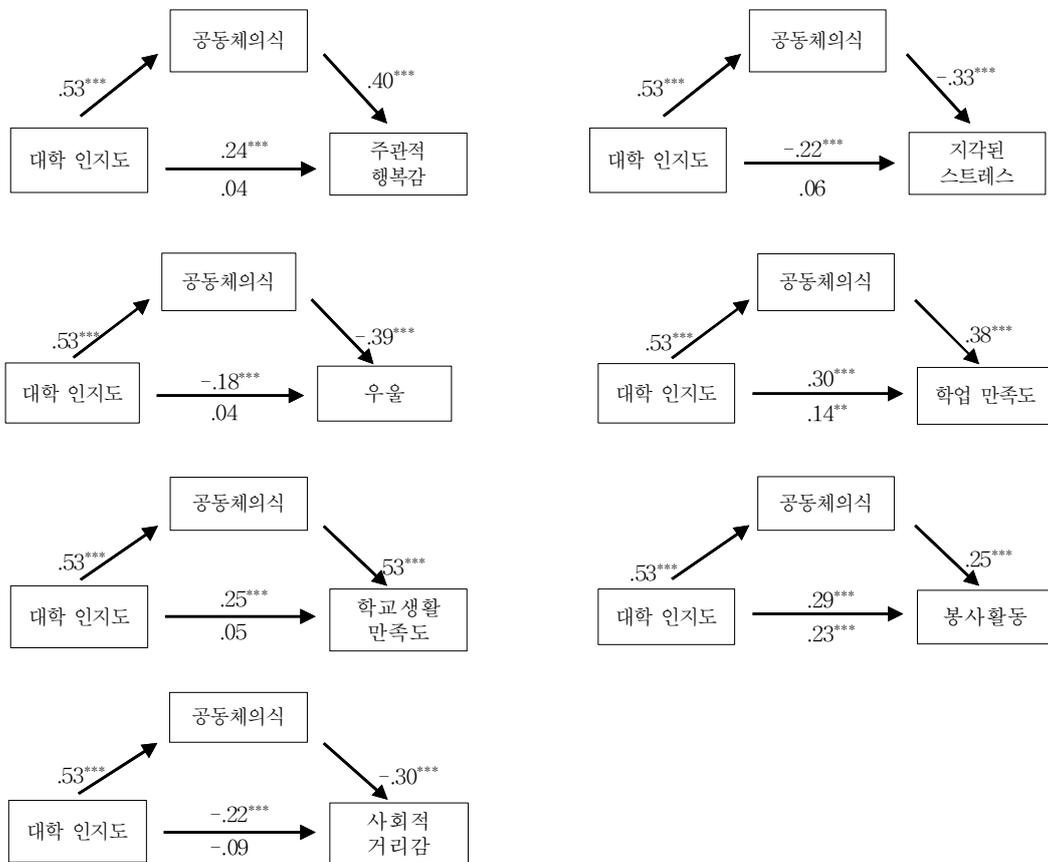


그림 1. 대학의 인지도와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표기된 수치는 표준회귀계수( $\beta$ )를 나타낸 것이며,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임

\* $p<.05$ , \*\* $p<.01$ ,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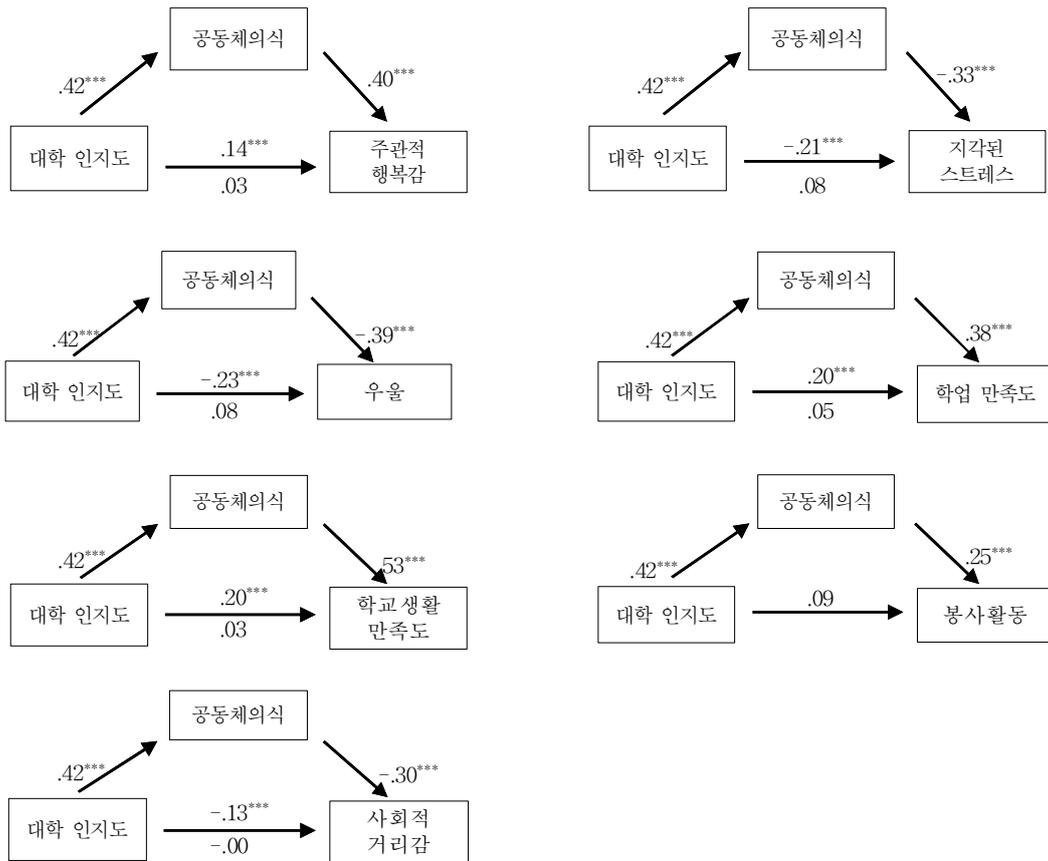


그림 2. 대학의 서비스 만족도와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의 관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표기된 수치는 표준회귀계수( $\beta$ )를 나타낸 것이며,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체의식을 매개 변인으로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주관적 행복감( $\beta = .04$ , *n.s.*), 지각된 스트레스( $\beta = -.06$ , *n.s.*), 우울( $\beta = .04$ , *n.s.*), 학교생활 만족도( $\beta = -.05$ , *n.s.*) 및 소외집단에 대한 거리감( $\beta = -.09$ , *n.s.*)의 변인들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졌다. 즉, 공동체의식은 대학 인지도가 이들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변인들 중 학업 만족도( $\beta = .14$ ,  $p < .01$ )와 봉사활동 참여( $\beta = .23$ ,  $p < .001$ )는 sobel-test 결과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z = 9.34$ ,  $p < .001$ ;  $z = 4.78$ ,  $p < .001$ .

다음으로 대학의 서비스 만족과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봉사활동 참여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서비스 만족이 봉사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야 하는 기본 가정에서 위배되어 ( $\beta = .08$ , *n.s.*) 매개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외된 봉사활동 외의 모든 변인에서 완전매개가 나타났다.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주관적 행복감( $\beta = .14$ ,  $p < .01$ ), 지각된 스트레스( $\beta = -.21$ ,  $p < .001$ ), 우울( $\beta = -.23$ ,  $p < .001$ ), 학업 만족도

( $\beta=.20, p<.001$ ), 학교생활 만족도( $\beta=.20, p<.001$ ) 및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beta=-.13, p<.01$ )의 수치가 공동체의식이 투입되자 주관적 행복감( $\beta=.03, n.s.$ ), 지각된 스트레스( $\beta=-.86, n.s.$ ), 우울( $\beta=-.08, n.s.$ ), 학업 만족도( $\beta=.05, n.s.$ ), 학교생활 만족도( $\beta=-.03, n.s.$ ) 및 소외집단에 대한 거리감( $\beta=-.00, n.s.$ )의 영향력이 모두 사라짐으로서 완전 매개가 나타났다. 즉, 대학의 서비스 만족도는 공동체의식을 완전매개로 하여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 인지도와 대학의 서비스 만족도는 대학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학생들의 개인적 안녕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 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만족감과 행복감은 물질적 향상이나 경제적 발전만으로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또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는 개인의 행복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가장 밀접한 공동체인 대학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살펴보고, 이들의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의 예측변인으로 적절한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대학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대학의 인지도와 대학서비스 만족도가 대학 공동체의식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식이 대학의 실질적 노력과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대학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안녕인 주관적 만족감,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학업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설명하는 예측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즉, 높은 대학 공동체의식은 대학생들의 높은 주관적 만족감, 학업 만족도,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낮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 결과는 지역의 공동체의식과 개인의 안녕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강가영, 장유미, 2013; 문제우, 박계산, 2013; Cicognani et al., 2009; Prezza et al., 2001; Roussi et al., 2006)에서 지역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및 학교 적응 등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여 준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학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개인의 안녕을 보여주는 변인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학 공동체의식이 학업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학 공동체의식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보여준 Townley 외(2013)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은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Banyard & Williams, 2007; Greenfield & Marks, 2010; Hobfoll, Jackson, Hobfoll, Pierce, & Young, 2002; Thomas & Hall, 2008). Greenfield와 Marks(2010)는 “자신의 공동체에 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결속력 있는 사회적 연결망 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통제감(sense of mastery)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높을 수 밖에 없다(p.130)”고 설명하였다. 또한, 높은 공동체의식은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지지가 탄탄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아탄력성(resilience)을 발달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Banyard

& Williams, 2007; Thomas & Hall, 2008).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생들이 가지는 높은 대학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대학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관심인 봉사활동의 높은 참여와, 소외집단에 대한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예측하였다. 이 결과는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밝힌 많은 연구들(박가나, 2009; 박재숙, 2010; 진성희, 이동주, 2010; Cicognani et al., 2008; Davidson & Cotter, 1989; Liu & Besser, 2003)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를 추론해 보면, Kruger(2010)는 개인이 공동체에 애착을 갖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하여 관찰을 하게 되고,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관심은 자신인 속한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자부심에 의해 강화를 받게 되고, 개인의 공동체의식 또한 더 확고해 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대학 내의 관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의 범위가 사회로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학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과 소외집단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대학이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대학 공동체의식을 높여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학이라는 집단은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 공동체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또는 소외집단에 대한 편견 및 차별과의 관련성을 살핀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에 대한 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이

대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대학의 인지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학생이 학교와의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짐작된다. 이는 대학 당국이 학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에게 빠르게 잘 전달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참여활동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인해 주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대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의 서비스 만족도 역시 대학 공동체의식의 예측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은 대학 내 시설 및 혜택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학생들 스스로와 자신의 학교와의 연결을 더 밀접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공동체의식의 한 요인인 욕구의 충족과도 강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학생들이 필요한 요구조건을 잘 살펴야 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의 인지도와 서비스 만족도는 대학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 프로그램 개발 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전략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학의 실질적인 방안을 인지도와 서비스 만족도로 제한하여 살펴보았으나, 이후 또 다른 효과적인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후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종단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주장할 수 없다. 분석방법에 의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실제로 개인의 안녕과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선행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필연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식은 본래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 타인의 복지를 함양하는 것까지 해당된다. 급변하는 현 사회의 정황 속에서 공동체의식은 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의식 및 실천 의식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의 재인식 및 회복은 이해관계에만 얽매어 있는 비인간적 사회관계를 인간화시키려는 대안 의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 97-123.
- 기영화, 김승현, 김난숙 (2013).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보*, 47(1), 295-320.
-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경준, 김성수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 211-232.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선숙, 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류승아 (2010). 정신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 복귀는 가능한가?: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 49-69.
- 문재우, 박재산 (2013).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2), 29-45.
-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 박준호, 서영석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 611-629.
-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 서정아, 조홍식 (2012).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역사회 자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 정수복 (1995). *공동체의식과 시민운동*. 서울: 공보처.
- 진성희, 이동주 (2010). 온라인협동학습에서 공동체의식과 토론참여도 및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6(1), 65-87.
- 차동필 (2006). 대학생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과학 연구*, 28, 169-183.
- 한은영, 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43, 95-124.
- Banyard, V. L., & Williams, L. M. (2007). Women's voices on recovery: A multi-method study of the complexity of recovery from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31, 275-290.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rkman, L. F., Glass, T., Seeman, I., & Brissette, T. E. (2000). From social integration to health: Durkheim in the new millennium.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1, 843-857.
- Cicognani, E., Pirini, C., Keyes, C., Joshanloo, M., Rostami, R., & Nosratabadi, M. (2008). Social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well being: A study on American, Italian, and Iranian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 Research*, 89, 97-112.
- Cicognani, E., Pietrantonio, L., Palestini, L., & Prati, G. (2009). Emergency workers' quality of life: The protective role of sense of community, efficacy beliefs and coping strategies. *Social Indicator Research*, 94, 449-463.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5-396.
- Davidson, W. B., & Cotter, P. R. (1989).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119-125.
- Farrell, S. J., Aubry, R., & Coulombe, D. (2004). Neighborhoods and neighbours: Do they contribute to personal well-be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9-25.
- Gattino, S., De Piccoli, N., Fassio, O., & Rollero, C. (2013). Quality of life and sense of community: A study on health and place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811-826.
- Greenfield, E. A., & Marks, N. F. (2010). Sense of community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long-term psychological effects of childhood violence. *Social Service Review*, 84, 129-147.
- Hand, C., & Tryssenaar, J. (2006). Small business employers' views on hiring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9, 166-173.
- Hawthorne, G., Herrman, H., & Murphy, B. (2006). Interpreting the WHOQOL-Brief: Preliminary population norms and effect siz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7, 37-59.
-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2-123.
- Hobfoll, S. E., Jackson, A., Hobfoll, I., Pierce, C. A., & Young, S. (2002). The impact of communal-mastery versus self-mastery on emotional outcomes during stressful conditions: A prospective study of native American wo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 853-871.
- Hughey, J., & Speer, P. W. (2002). Community, sense of community, and networks. In A. T. Fisher, C. C. Sonn, & B. J. Bishop (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pp.69-84).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Kawachi, I., & Berkman, L. F. (2003). *Neighborhoods and heal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ruger, P. S. (2010). Wellbeing: The five essential elements.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6, 325-328.
- Liu, A. Q., & Besser, T. (2003).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improvement activities by elderly residents in small towns and rural communities. *Rural Sociology*, 68, 270-277.
- Long, D. A., & Perkins, D. D. (2008). Community social and place predictors of sense of community: A multilevel and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

- 563-581.
- Lounsbury, J. W., & DeNeui, D. (1996). Collegiat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 to size of college/university and extrovers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381-394.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annarini, T., & Fedi, A. (2009). Multiple sense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 211-227.
- Manzo, L. C., & Perkins, D. D. (2006).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0*, 335-350.
- McMi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oles, A. A. (1979). *Methodologic notes and criteria for integration of quality life indicators*. Strasburgo: pubblicazioni CEE.
- Parker, E. A., Lichtenstein, R. L., Schulz, A. J., Israel, B. A., Schork, M. A., Steinman, K. J., & James, S. A. (2001). Disentangling measures of individual perceptions of community social dynamics: Results of a community survey.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28*, 462-486.
- Pretty, G. M. H., Andrewes, L., & Collet, C. (1994). Exploring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ationship to loneli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346-357.
- Prezza, M., Amichi, M., Roberti, T., & Tedeschi, G. (2001). Sense of community referred to the whole town: Its relations with neighboring,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nd area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29-52.
- Prezza, M., & Costantini, S. (1998).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8*, 181-194.
- Prezza, M., Zampatti, E., Pacilli, M. G., & Paoliello, A. (2008). Territorial sense of community, ethnic prejudice and political orientation.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315-332.
- Putman, R. (2001). *Bow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oussi, P., Rapti, F., & Kiosseoglou, G. (2006). Coping and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 exploratory study of urban and rural areas in Greece. *Anxiety, Stress, and Coping, 19*, 161-173.
- Sanchez, B., Colon, Y., & Esparza, P. (2005). The role of sense of belonging and gender in the academic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619-628.
- Thomas, S. P., & Hall, J. M. (2008). Life trajectories of female child abuse survivors thriving in adulthood.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8*, 149-166.
- Townley, G., Katz, J., Wandersman, A., Skiles, B., Schillaci, M. J., Timmerman, B. E., & Mousseau, T. A. (2013). Exploring the role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undergraduate transfer student experi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277-290.
- Wiseman, R. L., Gonzales, S. M., & Salyer, K. (2004).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tudents' sense of community, degree of involvement, and educational benefit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3*, 173-189.

1 차원고접수 : 2014. 06. 17.

수정원고접수 : 2014. 07. 24.

최종게재결정 : 2014. 07. 24.

## **The Effect of Collegiate Sense of Community on Individual Wellbeing and Social Involvement**

**Seungah Ryu**

Kyung Nam University

Sense of community(SOC) is the indicator that shows how person thinks of his/her community. The deficiency of SOC is tightly correlated with social problems in today. Especially, SOC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undergraduate student experience by individual's wellbeing and social involvement. Current study examine the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individual's wellbeing (subjective happiness,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cademic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involvement(volunteer's experience and social distance toward minor groups). The total 541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SOC predicted individual's wellbeing as well as social involvements. Also, SOC was predicted by awareness of the university and satisfaction of service provided by the university. Further, SOC mediated between awareness of the university/satisfaction of service provided by the university and individual's wellbeing/social involvement. The implication for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ense of community, individual wellbeing, social wellbeing*